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 지킬 수 없었다”

교황 마지막 메시지도 '세월호'
“위안부 할머니들 품위 잃지 않아”
남북 하나됨 위해 기도 제안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도 세월호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현지시간)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세기내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세월호 유족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유를 설명했다. 교황은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소개했다. 이 제안에 교황은 그에게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방한 기간 내내 노란 세월호 리본을 착용한 채 미사 등 각종 행사에 나섰다 이날 귀국 길 기자회견에도 세월호 리본은 교황의 왼쪽 가슴에 그대로 달려 있었다. AP통신은 교황 방한을 정리하는 기사에서 16일 광화문광장 사복식에 앞서 카피레이드하던 교황이 차에서 내려 세월호 유족의 손을 잡고 얘기를 들어 준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짚었다.

17일 세월호 희생자 고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를 만났을 때도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서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며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여기겠지만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한국민은 침략의 치욕을 당하고 전쟁을 경험한 민족이지만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았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들이 소녀였을 때 침략으로 끌려가 이용당했지만,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남북문제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분단으로 많은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하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다”면서도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쓰는 ‘한형제’인만큼 희망이 있다는 기대를 표했다. 그리고 남북의 하나 됨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고자 제안하고 예전에 없던 침묵의 기도를 읊었다. 교황은 전쟁의 ‘잔인함’과 ‘고문’을 인간성에 어긋나는 두가지 죄로 꼽으면서 인류가 현재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고문이 얼마나 일상화됐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교황청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중국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황은 “내게 중국에 갈 생각이 있는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당연하다. 내일이라도 가겠다’이다”라며 “교황청은 중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원할 뿐 다른 어떤 조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 방한길에 처음으로 중국 영공을 지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인에 대한 축복 메시지를 전했다며 17일에도 중국, 북한 등 아시아 지역의 교황청 미사교 국가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냈다. 교황은 자신에게 쏠리는 대중적 관심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 교황은 “내면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오만하지 않도록 내 죄와 잘못을 돌이켜 본다”면서 “인기라는 것은 기껏해야 2~3년밖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황은 “교황청 내에서 일하고 휴식하고 수도도 떨며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며 “주변에서 교황은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나 혼자 타겠으니 당신 일을 하라’고 말하는 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황의 방한 결산 기자회견은 한 시간 동안 이탈리아어로 진행됐다. 교황은 미국의 이라크 공습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당하지 못한 침략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막는 일이 정당하다”고만 말할 수 있다”며 “막는 행위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 수단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한다. 한 나라 혼자서는 정당치 못한 침략자를 어떻게 막을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라크를 방문할 수도 있는지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것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지는 몰라도 준비는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귀국 비행기 속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현지시간)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세기 안에서 기자회견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 32명중 12명이 특정교수 추천인사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 TF팀 구성 공정성 논란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민선 6기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특정교수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의 5분의 2가량을 차지해 논란이다. 특히 인수위 시절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해당 교수는 첫 TF 회의에서 자신이 추천한 위원들마저 건설 찬성입장으로 돌아서자, 5명의 위원을 추가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을 의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광주와 유사하게 민선 6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재검토중인 대전시는 의견이 상반된 전문가를 각각 6명씩 배치해 논의토록 하는 등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6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지난 13일 ‘27명으로 구성된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관련 기술자문 TF’를 발족했다. 당시 위원 구성을 보면 광주시 현직 공무원 8명, 예산담당관실 추천 2명, 교통정책과 추천 3명, 도시철도건설본부 추천 4명,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 추천 7명, 기타 3명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18일 이명규 교수의 추천을 통해 태스크포스 위원 5명을 증원했다. 이들 5명은 시민단체 출신 3명, 교수 2명 등 총 5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 여부도 논란이다.

이와 관련, 이명규 교수는 지난 13일 첫 TF회의에서 자신과 임나평 환경운동연합회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회의가 끝난 뒤 이상태로는 더이상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TF위원을 추가로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교수의 호언대로 실제 5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TF위원 32명 중 12명(37.5%)이 이 교수 1인의 추천으로 들어오는 전무후무한 일마저 발생했다. 윤장현 시장 인수위원 시절 긴급현안 특별TF팀장을 맡기도 한 이 교수는 당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KTX 광주역 진입 배치화 의사’를 밝혀 지역 내 갈등을 일으킨 인물로, 윤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명을 요구한 한 TF위원은 “이미 구성된 TF에서 특정인의 의견과 맞지 않는 위원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로 위원을 영입한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특정인의 입김이 강한 상황에서 TF가 합리적으로 운영될지 우려스럽다. 특히 도시철도를 논의하는 대부분의 위원이 자기유용을 이용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1차 TF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이 도시철도 건립을 찬성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영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콘텐츠진흥원 국비 유학생 68%는 ‘떡튀’

2009~2014년 장학금 받은 25명중 17명 미국 회사 취업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로 장학금을 지원한 유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졸업 후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2009~2014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비 장학금을 받아 미국 카네기 멜론대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센터(CMU ETC)와 휴먼컴퓨터 인터랙션연구소(CMU HCII)를 졸업한 유학생 25명 중 17명(68%)이 미국 회사에 취업했다. 국내 회사에 취업한 졸업생은 단 8명에 그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 전문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대학 연구소에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국비장학생을 선발해 2년간 1인당

등록금의 50%인 4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더니 미국 회사로 ‘떡튀’한 것”이라면서 “국비장학생 지원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졸업생이 일정 기간 반드시 국내에서 일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측은 “떡튀 논란이 일 수도 있지만 선진기술 및 노하우를 국내에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며 “졸업후 일정기간 국내에서 재능기부를 의무화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개의 헌 책방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선언하고 나선 뒤로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 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서점 주인이다.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기 기본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